

전남도의의회 예산안 심사 함량 미달

국비 35억 확보된 '천일염 사업' 예산 전액 삭감 특정 노동단체 위한 2억 어물쩍 통과...비난 고조

전남도의회의 2011년 예산안 심사가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성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사업조차 국비를 '삭감'하는가 하면, '허술한' 예산 편성이라고 목적을 높이며 정작 예산은 어물쩍 통과시키는 등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는데만 앞장서 도민 대표로서의 책무를 소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무개념 삭감=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는 전일염장관개선사업(총 사업비 117억)을 위해 확보된 국비 35억1000만원을 전액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국회가 전남도로 내려주겠다고 편성해 놓은 예산을 전남도의회가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집행부에 지방비 확보를 압박한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 예산이라도 전남도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삭감이 가능하다는 게 도의회 입장이다. 도의회측은 "국비를 확보했지만 도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아 시·군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고 이대로라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지도 의심스럽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힘들게 국비를 확보해놓고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의회가 '어민들 고통을 알면서도 부덕'이

게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지나친 결정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그나마 이 사업은 염전 바닥에 깔려 있던 폴리염화비닐(PVC)을 걷어내고 용기 등 친환경적 소재로 전환하는 것으로, 전남도가 '천일염 명품화·세계화'를 내세우며 추진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다. 농수산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한 국비에 지방비(11억7000만원)를 편성하지 않은데 대해 질타하기도 했다.

◇말뿐인 예산 심사=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전남도가 민주노동당 전남본부 사무실 임차비용(2억원) 명목으로 세워놓은 예산을 별다른 조정 없이 어물쩍 통과시켰다.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체 사업을 대폭 줄인데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특정 노동단체를 위해 2억원을 부담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그뿐이었다.

김효남(해남 2·민주)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화순의 백신 특구 조성 관련, "화순에는 17%가 넘는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를 지원하면서도 정작 고구마 특구인 해남에는 7% 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해남을 '물감자'로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로 인해 사업 계획을 비롯, 지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지역간 지원 금액만 놓고 비교, 전형적

인 지역구 민원 챙기기성 질의라는 지적도 나왔다.

◇부실 심의 비판 목소리 높아져=지역시민단체들도 부실한 예산 심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남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남도의회교육위원회 예산과행 도민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에서 갖고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교육청 예산안 386억원 삭감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권리와 요구를 심각히 침해하는 폭거이자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6일 부적응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관련 예산(2009년 8800만원)을 '학교 설립동의안을 미리 제출하지 않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절차상 문제를 내세워 전액 삭감,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국농민회 전남연맹도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가 '농정 예산이 지난해보다 14.9% 삭감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예산심의를 보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의회가 요구한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심의보류를 반복한데 대해 '의회가 집행부와 야합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F1관련 의혹과 실제에 대한 범도민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준)'도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F1 대회의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F1예산은 보류해야 한다"면서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를 비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 김대중 평화센터(이사장 이희호)는 9일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0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한스 울리히 자이트(Hans-Ulrich Seidt) 주한 독일대사를 초청, '독일통일 20년과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서울=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풍전등화 위기에 놓인 한반도 평화 DJ 정신 되새겨 화해하고 협력해야”

故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0주년 특강서 강조

故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10주년 기념행사가 9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과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열렸다.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이희호)와 김대중도서관(관장 김성재) 주최로 열린 이날 서울 행사에는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각 정당 지도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출신 주요인사, 재야원로,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독일통일 20년과 한반도 평화통일'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서울 행사에서 이희호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더 이상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남북은 즉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로 문제를 푸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백낙천 행사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을 걸쳐서 추구해온 남북의 화해협력과 한반도의 평화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남과 북은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정신, 노벨평화상의 정신으로 돌아가 대화하고 화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독일대사는 강연에서 독일의 통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뒤 "남한은 갑작스런 통일의 도전에 당면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어떠한 예상이나 계획도 일대일로 실행되지 않는다 해도 한국 정부는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위치에 있으며 통일한국이 가져올 국내 뿐 아니라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결과를 상기해야 한다"며 "따라서 미국·중국·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향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성공적인 통일은 이들 주요 역내 주요 강대국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연을 맡은 정세현 전통일부장

관은 "야당 시절 동방정책을 비판했던 기민당도 막상 집권한 후에는 13년 동안 추진되어 온 동방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여 집권 7년 만에 통일을 완성했다"며 "이명박 정부야말로 독일사례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의 주요 참석자는 백낙천 행사위원장(인제대학교 이사장),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정희 민노당 대표,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박지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당 지도부, 권노갑·한화갑 전 의원 등 측근인사, 백낙천 서울대 명예교수, 서영훈 전 적십자사 총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등 재야 원로,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 김원기·임재정 전 국회의장, 전윤철 감사원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 김성재 김대중도서관장 등이다.

한편, 서울 행사에서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상급 이자와 참가자들의 후원금으로 마련한 쌀 1300포대(20kg)를 13개 무료급식기관에 전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구 송하동·압촌마을 문화·교육특구 조성 추진

광주시 남구가 국제화 문화·교육특구 조성에 나선다.

남구는 9일 "근대 역사문화의 보고인 양림·사직동, CGI센터가 조성될 송하동, 전통음식산업의 맥을 잇고 있는 압촌마을을 중심으로 문화특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또 광주시역 상위 20개 고등학교 가운데 9개 고교가 남구지역에 있다는 점을 토대로 교육특구 지정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문화특구 지정에 따른 주요 사업으로는 ▲지식교육도시 조성 ▲외국어교육 집중화사업 ▲근대역사문화교육 및 음악콘텐츠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등이다.

또 스튜디오와 교육센터, HD종합편집실 등을 갖춘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지원센터가 사직동에 건립되고, 주월1동 옛 과학고등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창의기술학교로 전환돼 CGI센터에 인재를 보낼 계획이다.

국비 354억과 시비 400억 등 총 사업비 844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11년에 시작해 오는 2015년에 마무리될 계획이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교원연수지원비 등 13개사업 19억 삭감

다문화자녀교육지원 등 3개사업 7억 증액

시의회, 교육청 내년 예산 계수조정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교원연수지원비 등 13개 사업 19억1162만 1000원을 삭감하고,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등 3개 사업 7억3652만원을 증액한 1조 3720억5604만1000원 규모의 '2011년 광주 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광주시의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찾아가는 장학금설계제 운영 5억6861만 3000원 전액과 ▲수석 교사제 운영 3억4776만 원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지원 1억9000만원 ▲성과상여금 1억8842만8000원 ▲영어교사 국내심화연수 경비 1억8000

만원 등을 삭감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9300만원 ▲광주교육홍보물 제작지원 9242만원 ▲교원연수지원비 6400만원 등도 줄였다.

특히 대상여고 급식기구 확충비 9000만원과 우수 영어 교사인증제 4280만원, 방과후 학교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 3000만원, 고사장 행정장비 임대료 1800만원은 전액 삭감했다.

반면, 시 교육청이 미처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타일 공사비 6억1000만원과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1억2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652만5000원 등은 증액했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姜시장 대한민국 무궁화대상

강운대 광주시장이 (사)대한무궁화중앙회(총재 명승회)가 마련한 '제19회 대한민국 무궁화대상' 행정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10일 오후 5시 서울 공근문화관에서 개최되는 '대한무궁화중앙회 창립 34주년 기념 및 제19회 대한민국 무궁화대상' 시상식에서 행정부문 대상을 받는다.

강 시장은 모든 시정의 가치기준을 '시민의 행복'에 두고 모범 행정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2010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도지사 분야에서 매니페스토 도서 부문 대상 및 선거공약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2010년 국가직/ 지방직 수탁출제에 따른 수험전략/ 채용인원현황/ 바뀌는 시험정보/ 조기합격을 위한 수험대책/ 국가직, 지방직 시험일정 및 거주지 요건정리

공무원 합격실명회

2010년 12월 27일(월) 14:30~ (사전예약접수 중)

참석자 전원 최근 5년간 기출문제증정/ 고급노트증정 종합반교재 5권 20만원상당 무료추첨 10명, 영어/한국사 교재 2권 무료추첨 10명

타 학원 공무원 합격설명회 다 들어보시고, 학원선택은 반드시 비교후 소문들고 선택하십시오! 고시학원의 대세는 "역시" 한빛고시학원입니다.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교행직/ 농업직/ 기술직/ 소방직/ 교정직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합격은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김영편** 입학원 227-8088

개강
1월
3일